

2) 망양정해수욕장

산포 2·3·4리는 동해에 인접하여 있으므로 해안선을 따라 해수욕장이 형성되어있고 특히 망양정해수욕장은 옆으로 왕피천이 흘러 바다로 유입(流入)되고 있으며,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이 뒤에 있어 여름이면 많은 관광객이 쇄도하고 있다.

제4절 수곡리(水谷里 : 1·2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왕피천 건너 성류굴이 있고 서쪽은 통고산맥(通古山脈)이 동쪽으로 뻗어 한티재(寒汰嶺)를 이루고 있다. 남쪽에는 구산리(九山里)가 있고 북쪽은 한티재의 지맥(支脈)이 마을 뒤를 둘러싸고 있으며 산 너머에는 행곡리가 있다. 마을회관은 2016년에 개축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격암 남사고 선생을 배향하는 자동서원과 격암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2. 마을의 역사

1) 누금[累金 : 수곡 1리]

1580년경에 영양 남씨(英陽南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는데 뒷산의 암벽이 황금색이고, 또 황금(黃金)이 많이 쌓이는 마을이 되어 달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또는 설운촌(雪雲村)이라고도 하는데 마을이 냇가에 있어 구름이 많이 끼고 서리가 일찍 내려 곡식이 잘 익지 않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2) 두전(斗前)

1850년경에 울진 임씨(蔚珍林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는데, 마을 앞산 위로 바라보이는 북두칠성(北斗七星)이 언제나 마을을 비추고 지켜준다는 뜻으로 두전(斗前)이라 하였다고 전한다.

3) 막금[幕金 : 수곡 2리]

1600년경에 평해 황씨(平海黃氏)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고 전한다. 그리고 마을을 둘러싼 산과 흐르는 강물이 비단으로 둘러놓은 듯이 아름다우므로 막금(幕錦)이라 하였다 한다.

4) 비들앞[飛前里 : 수곡 1리]

마을 뒷산의 산세(山勢)가 새가 날아가듯 하고 앞에는 넓은 들이 있다 하여 비들앞이라 하고, 또 비월동(飛月洞)이라고도 하는데, 마을 앞 맑은 물에 밝은 달이 비치어 월색(月色)도 날아가는 듯하다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3. 가구 분포

125세대가 거주하며, 수곡1리인 누금, 비들앞 마을에 60세대가, 수곡2리인 막금, 두전마을에 65세대가 거주한다. 여양 진씨(驪陽陳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영양 남씨(英陽南氏), 경주 최씨(慶州崔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特徵)

1) 격암 남사고 유적지

격암 남사고[1509~1571]의 학문과 도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생가터에 조성한 울진 유학의 성소이다. 사당인 치격사(致格祠)와 서재와 강당인 자동서원(紫洞書院), 수남정사(水南精舍), 기념관, 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념관에는 남사고의 영정과 서적 및 천문기구 등을 전시하고, 서원 뜰에 해월 황여일의 시와 격암의 일대기를 담은 조형물을 조성했다. 남사고는 “동양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예언가이자 도학자, 천문학자, 인문지리학자이다. “해동강절(海東康節)”로 불리며,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이해’를 접목해 체계화한 ‘울진 철학사의 아이콘’이다. 임진왜란 예언, 동서분당론(東西分黨論), 호미곶, 선조 즉위 등 예언 설화가 다수 전한다. 「남사고비결(南師古秘訣)」, 「남격암십승지론(南格庵十勝地論)」이 「정감록(鄭鑑錄)」에 전하며, 편저인 「선택기요(選擇紀要)」가 있다. 상현사에 배향됐다.

2) 성황당(城隍堂)

1600년경부터 성황신(城隍神)을 모시는 곳으로 1700년경에 강원도 관찰사(觀察使)가 한티재(寒汰嶺)를 넘기 위하여 말을 타고 성황당 앞을 지나던 중, 말이 가지 않아 하는 수 없이 내려서 성황당에 절을 하고 출발하였다고 전한다.

3) 한티재(寒汰嶺)

이 재는 막금(幕金)에서 서쪽으로 2km 거리에 있는 높은 재로서 옛날 울진에서 서울로 과거(科擧) 보러 가던 대로(大路)였다. 이 재를 막 넘어서는 곳을 찬물래기라 하고 재를 넘어서면 불영사계곡이 있다.